

황태연, 『한국 금속활자의 실크로드』 (술과학, 2022). 647쪽.

김화선†

필자의 연구는 자신이 한국인으로서 한국 금속활자를 세계적 차원에서 알리고 구텐베르크를 통해 세계적 문화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한국 금속활자의 세계사적 영향과 인류 문명에 대한 이것의 혁명적 역할을 밝히려는 민족적 이익과 분명 다분히 관련된 것이다.(555)

위 인용문은 황태연(이하 저자)이 글의 맺음말에 밝힌 본 서적의 집필 목적이다. 저자는 일관적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혁명은 허구이며,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먼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의 서천론(西遷論)과 반(反)서천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14건의 서천론과 5건의 반서천론에 대해 정리하면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황증거를 제시할 뿐 직접적인 문서증거를 대지 못하는 등의 약점이 있으며, 서천 루트 역시 육상루트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한국 금속활자 서천을 입증하는 것은 정황증거와 문서증거가 있는데,

† 전북대학교 강사, hwaseong8@jbnu.ac.kr

1 황태연은 동서고금의 정치철학을 폭넓게 탐구하면서 공자철학과 한국·중국근대사에 관한 광범하고 철저한 연구를 바탕으로 공자 철학의 서천을 통한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서양 근대국가 및 근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책에 소개된 그의 저서를 살펴보면, 공자철학에 대한 연구서가 대략 15권(시리즈물 1권으로 계산), 한국정치철학 및 한국정치사·한국정치사상사 분야 14권, 서양정치 분야 7권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해외 번역서 및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다수 발표했다.

정황증거는 서천 루트를 통해, 문서증거는 서적, 기행문, 일지, 서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중 문서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저자 역시 아직 까지는 한국산 활인본(活印本) 서적의 유럽 내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은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저자는 정황증거로서 가능한 서천 루트와 문서증거를 통해 한국 금속활자 인쇄의 서천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서천에 관한 경로 추적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과 관련된 여러 요소 중 저자는 한국의 금속활자, 금속활자 인쇄본, 금속활자 인쇄술 정보 등이 육상과 해상루트를 통해 서천되었다고 보았다. 먼저 서천의 육상루트로 네 가지 경로를 추정하였다. 첫 번째는 고려 금속활자가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다. 몽고군의 고려 침략 과정에서 약탈해간 물품에 금속활자나 활인본 서적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금속활자 인쇄 경험이 있는 공인들도 데려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실크로드를 따라 몽고인들은 고려의 종이와 금속활자를 서쪽의 일 칸국과 킵차크 칸국에 전달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고려 사신들이 카라코룸을 방문할 때마다 가지고 간 물품 중에 고려의 금속활자 활인본 서책들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고려의 금속활자 활인본 서책들은 정식 상단에 의해 중국 상인들에게 팔리거나, 또는 중국 북경에 체류하던 유럽 선교사가 고려인들과 접촉하면서 인쇄기술을 유럽에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려는 이미 1211년 활자로 책을 인쇄하였기 때문에 1211년 이후에 중국의 정부와 개인이 소장한 고려본, 조선본 책은 목판본과 활자인쇄본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서적들이 서양인들에게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한국본 책을 중국산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조비우스, 멘도자, 베이컨 등이 활자본 서적들을 중국에서 건너온 책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440년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보는 시점보다 거의 200여년 전에 금속활자 인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산 서적으로서 서천했던 것은 사실 상당수의 것이 한국산 서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두 번째 육상루트는 북원(北元)과 명대의 루트를 들었다. 이 시기에 유력한 경로로 세 가지 경로를 추정하였다. 첫째, 명나라가 흥기하고 원나라가 북방으로 축소된 이후에 고려와 조선의 교역 루트를 통해 서적이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킵차크 칸국과 북원의 몽고인들은 조선에서 서책을 사들여 러시아 남부지역과 흑해 연안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다시 흑해 연안, 베니스 제노바, 포르투갈, 스페인 등지로 반입되어 유럽에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하는 경로이다. 이와 같은 추정은 허드슨의 글에서도 볼 수 있으나, 허드슨 역시 이는 밝혀지지 않은 추측임을 제시한 바가 있다. 둘째, 오이라트 몽골 상인과 중국인들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의 활인본 서적이 서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베니스 상인들의 사례나 일화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런던까지 갔다는 것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본도 같은 경로를 통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다양한 루트로 여러 지역 상인들의 교역과 여행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공증문서들의 예를 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의 활자본 서적들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한국의 활판인쇄를 하는 공인들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베니스까지 팔려간 노예들 속에 끼어들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유럽까지 팔려간 공인들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기술 정보들을 유럽인들에게 전했을 가능성을 추정한 것이다.

또한 저자는 한국 금속활자의 서천 루트를 추적해온 카터(Thomas F. Carter), 허드슨(Geoffrey F. Hudson), 카프르(Albert Kapr), 바레트(Timothy H. Barrett) 등의 연구자들은 육상 루트만을 제시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와 달리 저자는 해상 루트를 제시하였음에 의미를 두었다. 원, 명대 세계 최대 항구도시였던 천주(泉州)에서는 동서 무역이 번창했는데, 이 무역항을 중심으로 고려와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본들이 유통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천주는 당대 세계 최대의 무역항이었고, 고려는 1206년부터 천주에 입항했던 국가 목록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주는 고려와 조선 상인들이 자주 찾은 국제 무역항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말부터 늦어도 조선 초에는 금속활자의 제작기술, 인쇄술에 관한 정보, 금속활자 인쇄본 서적들이 천주를 통한 바닷길로, 이탈리

아로 전해졌고, 나아가 유럽 전역에 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당대 천주가 국제적인 최고의 무역항이었다는 점과 고려 상인의 출입 기록이 밝혀진 것을 통해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의 해상 루트는 고려 개경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벽란도에서부터 나주, 천주를 거쳐 인도양, 아라비아해, 오만만, 호르무즈해협, 페르시아만, 바스라, 레바논, 지중해, 이탈리아로 이어졌다고 추정하였다.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서천 루트에 대해 저자는 선행연구자들의 육상 루트를 정리하면서, 저자는 그들이 제시하지 못한 해상 루트를 새로이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저자가 제시한 천주는 12세기부터 주요 교역항으로서 역할을 했고, 고려와 조선 역시 천주에서의 무역을 활용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면서 1211년 고려에서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서적이 나왔다고 때문에 천주를 통해 유통된 고려, 조선의 서적이 어떠한 서적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거래되었던 서적의 목록에는 목판과 금속활자 인쇄본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유통된 서적들이 유럽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서천에 관한 문서 증거

저자가 제시한 문서증거는 16세기 문서 3건과 17세기 문건 2건이다. 먼저 16세기 문건은 파울루스 조비우스(Paulus Jovius, 1483-1552), 루이 르루아(Louis Leroy, 1510-77), 후앙 멘도자(Juan Gonzales de Mendoza, 1545-1618)의 기록이다. 먼저 조비우스는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극동에서 왔다고 본 사람이다. 1546년 베니스에서 발간된 『자기 시대의 역사(Historia sui temporis)』에는 활판 인쇄술이 중국에서 발명되어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황 레오가 조비우스에게 보여준 책이 1488년 이후에 몽고인을 뜻하는 “스키타이사람”과 “모스크바사람들”을 통해 중국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에 대해 저자는 당시 포르투갈은 중국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컸는데,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중국에서 구한 활인본 서적을 교황에게 준 것이라고 보면서, 1490년까지 중국에는 활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으로 전해진 활인본 서적은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

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1575년 루이 르루아는 『우주의 사물들의 변천 또는 다양성(*De la Vicissitude ou Variété des Choses en L'universe*)』이라는 책을 통해 구텐베르크식 주자공정과 인쇄공정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특히 ‘눌러 찍는 인쇄기’를 통해 두 인쇄공이 하루에 1,250장에서 1,300장을 인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쇄기술은 포르투갈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져왔으며, 몇몇 사람들을 그 발명품을 타타르와 모스크바를 통해 독일로 가져왔다고 보았고, 이에 저자는 그 서적이 한국 서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달리 후양 멘도자는 1585년 스페인어판 『중국대제국의 역사(*Historia de las cosas mas notables, ritos y costumbres del gran Reyno de la china*)』에서 극동 인쇄술 서천의 육상, 해상 루트를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텐베르크가 극동 인쇄술을 모방하였다고 보았다.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거쳐 독일로 들어온 육상경로와 홍해를 경유해 스페인으로 또는 아라비아만, 페르시아만을 거쳐 스페인으로 들어온 해상경로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멘도자는 중국인들로부터 가져온 것에 대해 금속활자 인쇄술과 목판 인쇄술을 섞어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뒤섞어 말할지라도 구텐베르크는 유럽의 몇몇 상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가져온 인쇄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금속활자 인쇄술을 재발명했던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책은 한국 인쇄본 책으로 바뀌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멘도자의 글을 서천론의 근거로 제시한 전존훈(錢存訓, Tsien Tsuen-Hsuin)과 장수민(張秀民)의 사례에 대해서는 잠재된 중화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멘도자의 구절을 중국인쇄술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저자는 17세기 금속활자의 서천을 증언한 글로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과 미셸 보디에(Michel Baudier, 1589-1645)의 근거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루이13세 시절 프랑스 궁전 역사기록관이었던 미셸 보디에의 1626년 『중국 왕조의 역사(*Histoire de la cour du roi de la Chine*)』를 볼 필요가 있다. 보디에는 중국의 국가 제도, 교육, 풍속 등을 설명하면서 중국 인쇄술도 소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육상과 해로를 통해 중국에서 한자로 인쇄된 책을 들여왔고, 이 책이 독일로 들어와 구텐베르크가 알게 되었으며, 이를 모방하여 활자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보디에의 글과 멘도자의 보고에서 해로와 육로를 통한 중국 인쇄술의 서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두 명의 서천론에서 인쇄술은 금속활자 인쇄술을 지칭하고 있고, 이 사례에서도 역시 ‘중국’이라는 말은 ‘한국’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1211년 고려에서 금속활자 인쇄본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활자 인쇄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16세기에 기록된 문서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서양 전래 중국 인쇄본 서적 중 활인본 서적은 한국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 인쇄기술의 허구, 조선의 활인·번각시스템

저자는 서양에 소개된 활자 인쇄는 한국에서 전래된 것이라고 보는 주장을 견지하면서 강한 어조로 구텐베르크 혁명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는 ‘기술적 고립성’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며, 서양의 인쇄혁명은 19세기 ‘지형·연판 시스템(flog-stereotype system)’(1828)이 나오고 나서야 일어났다고 보았다.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의 방식으로는 책을 조판한 뒤 해판하고 다른 책을 다시 조판하는 공정을 연달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형·연판 시스템은 지형을 떠 연판을 만들고 활자판은 해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활용할 활자의 수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쇄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게 하였고, 바로 이점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구텐베르크의 인쇄는 필사본 서책을 대체하려는 것만을 목표로 두었고, 다른 인쇄체계를 활용하여 좀 더 활성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립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조선의 ‘활인(活印)·번각(飜刻)시스템’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는 모든 서적을 소량 인쇄했고, 이 중에서 특별히 수요가 많은 서적의 대량생산은 ‘번각’을 통해 인쇄해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고려 때의 『남명천화상승증도가』에서부터 조선 후기 고종 때까지 활자 인쇄와 번각이 연계된 서적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활인·번각시스템이 고려 때 금속활자 인쇄가 발명될 때부터 전승되어 조선말

까지 이어진 것이라 보면서, 활인·번각시스템은 금속활자의 ‘다책종 소량생산 원리’와 번각목판본의 ‘소책종 대량생산 원리’의 두 장점만을 결합하여 ‘다책종 대량생산’의 새로운 지평을 타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국 금속활자인쇄의 혁명적 측면을 보여준다고 제시한 ‘활인·번각시스템’은 분명히 논의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자도 설명하고 있듯이 금속활자 인쇄본의 목판으로의 번각은 조선시대 지식의 확장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활인·번각시스템은 조선 전반기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미자(1403) 인본의 번각은 단종2년(1454)에 2건이 있었고, 경자자(1420) 인본의 번각은 단종, 성종, 연산군, 미상(未詳) 등 6건, 갑인자(1434) 인본의 번각본 21건은 성종 이후이며, 중종과 선조 때 가장 많이 번각하여 인쇄되었다.² 을해자본 역시 중종과 선조 때 가장 많이 번각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본의 번각은 처음부터 활발히 활용된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영·정조때에 가장 활발히 번각되어 활용되었다고 본다.³ 물론 고려 때부터 근근이 활자본의 목판 번각 인쇄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활인·번각이 활발히 활용된 것은 조선 후기였다.

조선에서의 활인·번각은 조선 후기 지방의 감영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비록 활인·번각이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기는 했지만, 그것이 저자가 언급한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실행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활인·번각시스템과는 별개로 지방에서 목활자 인쇄가 매우 성행하였다. 조선 후기 지방에서의 인쇄의 주축은 활자본의 번각, 목활자, 목판인쇄였다. 조선 후기에는 상업적으로 제작된 방각본 서적들도 유통되었고, 족보의 목활자 인쇄가 성행하였는데, 이 사례 역시 활인번각된 것들이었는지는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 이처럼 한국의 활인·번각시스템은 조선 후기 출판에서 혁명적인 인쇄량 증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것이 한국 금속활자 인쇄 전반의 대표성을 띠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더 분석해볼 여지가 있다.⁴

2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1974), 205-207.

3 예를 들어 조선시대 한글활자본의 번각은 초주 갑인자(甲寅字)본에서부터 정조때의 정리자(整理字)본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번각된 것은 영·정조때의 무신자(戊申字)본과 정유자(丁酉字)본이라는 연구가 도출된 바도 있다. 우진웅, “조선시대 한글활자본의 인출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회』 79 (2019), 89-110.

4 평자 역시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본의 지방에서의 번각은 지식 확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

한편, 저자는 구텐베르크의 활자인쇄공정에서 알파벳의 부적합성도 거론하였다. 조선과 같이 활인·번각시스템이 없는 기술적 고립성 때문에 구텐베르크를 비롯한 서양의 금속활자 인쇄는 조판틀을 만들고 난 뒤 해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 조선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은 알파벳 활자를 만들어두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서적 인쇄 경비가 폭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구텐베르크 활판술의 기술적 고립성은 다양한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 저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사실은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심지어 서양의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목판인쇄보다 느리고 비쌌다면서 프랑스의 중국학 학자 자크 게르네(Jacques Gernet, 1921-2108)의 말을 빌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중국의 목판 인쇄술에 대비될 수 없는 ‘미미한’ 변혁적 요소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아이젠슈타인(Elizabeth L. Eisenstein)과 존맨(John Man)의 글을 통해서도 저자는 구텐베르크 혁명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해석하였다. 아이젠슈타인이 기록한 ‘지속적 누증’ 효과라는 것은 15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문선공, 식자공, 인쇄공의 경험과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누증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로써 아이젠슈타인은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에둘러 말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1893년 조지 이스트우드¹⁾가 완성한 ‘지형·연판 공법’이 가히 ‘인쇄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존맨은 극동에서 구텐베르크와 유사한 활판술이 나왔지만 구텐베르크가 잠재적 혁명을 실제적 혁명으로 바꾸었다고 보았고, 그 이후에 인쇄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500년경이 되면 1-2만 명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렇지만, 당시 인쇄된 서적의 가격은 당시 노동자의 한 달 월급보다 비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저자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를 통한 서적의 대중화는 없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

술 활용이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달리 조선은 금속활자 인쇄가 목판보다 활성화되었고, 특히 조선 초기에 금속활자 인쇄기술체계 즉 기술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보면서 이와 같은 체계의 형성이 조선이 지속적으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체계의 성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자 역시 조선 초기에 활자본의 목판으로의 번각과 관련된 사례들을 조명하였지만, 이는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적인 서적 생산의 보급 측면에서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활인·번각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화선, “조선 초 금속활자 인쇄기술 체계의 성립”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로는 많은 서적을 인쇄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일관되게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의 기술적 고립과 활자인쇄 공정에서의 알파벳 체제의 부적합성을 거론하면서 구텐베르크 출판 혁명은 허구였다고 비판했다. 출판 혁명은 맹아 단계에서 유보되었고, 장기간 잠재 상태에 처해있었으며, 19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인쇄혁명이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가 기술적으로 고립되었다는 측면을 설명하는 과정을 좀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졌던 구텐베르크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논의와 그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는 금속활자 주조, 금속활자에 적합한 종이와 먹, 프레스 기술 등의 응용이 주요 기술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고립성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기술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가 조명되지 않은 채, 조판과 해판에서의 활자 활용의 부적합성이 인쇄혁명을 유보하게 만들었다는 점만을 거론하고 있는 점은 구텐베르크의 기술에 관한 고립성을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을 준다.

또한,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가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575년 르루아의 기록과 같이 하루에 1,250-1,300장을 인쇄해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자는 르루아의 기록과 조선의 인쇄량을 비교하기 위해 『자치통감강목』의 인쇄 사례를 들고 있지만, 저자는 이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대략 그 시기에는 몇 부를 찍었다’는 가정하에 『자치통감강목』의 인쇄량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 서적을 금속활자로 인쇄하는 것은 서적마다 상황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대략 얼마를 찍었다는 가정으로는 적절한 비교가 어렵다.

나아가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는 16, 17세기까지 무기력했고, 미미한 변화만을 초래했다고 일반화를 하면서 그 사례로 저자는 쉴트베르거(Johann Schiltberger, 1380-1440)의 동방여행기 사례를 들고 있다. 이 동방여행기는 시차를 두고 필사본, 목판본, 활인본의 형태로 판매되었는데, 이 서적의 목판과 활판의 인쇄유형 중 1473년부터 1606년까지 133년 동안 거의 목판본만 계속 출판되었다고 한다. 저자는 당시 엄청난 유행을 한 서적이 17세기 초까지 목판본으로만 인쇄한 것을 두고 목판인쇄가 출판 무대를 지배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목판이 있는데, 굳이 활자로 인쇄해야 했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쇄본이 없다면 활자로 조판하여 판본을 만들 테지만, 목판이 있다면 굳이 활자로 인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서천론을 다양한 선행연구와 근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비판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의 논의는 분명 논쟁적이다. 또한 저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서천에 관한 주장은 아직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 추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제시된 다양한 루트와 문서들은 앞으로 연구자들이 더욱 깊게 고찰해볼 필요성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